

르노삼성 SUV, 국내외 총횡무진... 경영정상화 쾌속 질주

XM3 5월에만 4147대 수출
28개 유럽 국가로 판로 확대
QM6 LPG 모델 등 국내 인기몰이
3개월 연속 월 3000대 이상 판매

르노삼성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SUV)의 인기에 힘입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르노삼성의 중형 SUV QM6가 내수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2022년식 소형 SUV XM3가 해외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1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달 5월 판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 판매량이다. XM3의 유럽 수출 증가에 따라 5월에만 총 4147대가 수출됐다. XM3가 수출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선적이 이뤄졌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22년형 XM3 출시 간담회에서 도미니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은 “올해는 르노삼성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XM3 수출 물량을 제때 공급해야 회사 생존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고 직원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이번에 선보인 XM3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XM3의 성공적인 판매 여부가 향후 르노삼성의 경영 정상화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르노삼성 2022년식 소형 SUV XM3.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نيسان 로그의 위탁 생산이 중단되며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XM3 판매가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XM3는 현재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XM3는 유럽 전역 출시 이전임에도 1만대 이상 판매됐다.

르노삼성은 이달 말 28개 유럽 국가로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르노삼성은 XM3의 유럽 적시 공급을 위해 부산공장은 이달부터 2교대로 전환해 풀가동하고 있다.

내수 시장은 QM6가 든든하게 이끌고 있다. QM6는 지난달 총 3081대 판매되며 3개월 연속 월 3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내수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QM6는 국내 유일의 LPG SUV인 QM6 LPe 모델이 총 1902대 판매되며 QM6 전체 판매량의 62%를 차지했다. QM6 LPe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 뛰어난 경제성 및 도넛 탱크로 확대된 트렁크 공간 효율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스테디셀러 모델 반열에 올랐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XM3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등 국내 젊은 소비자 공략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가장 큰 특징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차 안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미리 차에서



르노삼성 뉴 QM6.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하면, 카페 도착 후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커피를 받아볼 수 있다.

르노삼성은 인카페이먼트로 주문 가능한 상품 수와 구매 가능한 상품의 종류도 계속 확대해 갈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호재에도 르노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르노삼성은 올해 초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하는 등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노라 사장은 “르노삼성 노조 파업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걱정거리다”며 “파업으로 인해 르노삼성 이미지가 국내, 더 나아가 유럽시장에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노라 사장은 올해 르노삼성의 경영 목표를 ▲성공적 인력 구조조정 ▲부산 공장 경쟁력 회복 ▲내수 시장 수익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올해초부터 이미 ‘서바이벌 플랜’을 시행 중”이라며 “르노그룹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한국 시장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현재 봉착한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희망퇴직 시작했고 인력 구조조정이 시행됐다”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외곽 아파트로 번지는 풍선효과

도봉구, 재건축 호재에 한 달 새 5000만원 ↑

창동주공17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전용 36㎡ 5억2500만원 매물 등록

서울 외곽지역인 도봉구 집값이 창동주공17단지 등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동주공17단지 아파트는 18, 19단지에 이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다.

13일 도봉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주공17단지 아파트는 지난 8일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해당 구청에서 진단), 정밀안전진단(민간업체), 적정성검토(공공기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창동주공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총 7개 단지(1~4, 17~19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17단지를 비롯해 18, 19단지 3곳이다. 17단지는 1980가구 규모로 지난 1989년 7월 준공됐다. 주력 평형대는 전용면적 36㎡(1350가구)이다. 현재 18단지와 19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낭보에 호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17단지는 현재 전용 36㎡가 5억25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달 4억7800만원에 팔린 실거래 가격보다 5000만원가량 올랐다.

같은 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창동상아1차 아파트도 상승세다. 이 아파트는 694가구 규모로 1987년 11월 준공됐다. 상아1차 아파트는 전용 45㎡



서울 도봉구 집값이 창동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매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창동주공19단지 아파트. /정연우 기자

가 5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면적형은 올해 초 5억5000만원에 팔린 후 지난달 6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11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봉은 전주 대비 0.18%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노원(0.33%) ▲동작(0.19%) ▲강동(0.18%) ▲금천(0.18%) ▲도봉(0.18%) ▲종로(0.16%) ▲성북(0.15%) ▲성동(0.14%) 순으로 올랐다.

도봉을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의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위주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를 실시한 데 따른 풍선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

기로 합의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부터 입주권을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이에 투기수요 유입이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우려를 비롯해 단지 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사업 시작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희토류 中 의존도 심각... 산업안보 위협”

무협 희토류 공급망 현황·시사점
“자체 공급망 구축 등 자원 관리 시급”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희토류의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88.0%에 달해 중국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는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데다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타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세계 각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희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원료로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산업안보의 차원에서 희토류 원료 확보·공정기술 개발·비축 및 자원 순환의 전 과정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해 희토류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희토류의 국내 공급망 구축 사례로 최근 호주 광산기업-국내 스타트업-자세 생산업체-제품수요대기업이 협력해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에 성공하고 곧 양산 시설 구축에 나서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협동 연구개발, 국내 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으로 영구자석 생산 전 단계에 걸쳐 자립적인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친환경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공급망의 국내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